



■ 오늘 제74주년 광복절 / 민간차원 제주 독립유공자 발굴조사 한계

항일운동 자료 미비로 탈락 ‘비일비재’

현재 제주출신 독립유공자 189명… 생존자는 1명
“정부 차원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 목소리 비등

제주도내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조사작업이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자료확보에 한계가 있고 객관적으로 공적이 분명해도 자료 미비를 이유로 유공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제주항일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추진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발굴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료미비로 유공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달 현재 제주출신 독립유공자는 189명으로 이중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인 강태선 선생(95세)이 유일하다.

강 선생은 19세이던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돼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고 복역 하던 중 광복으로 출옥했다. 정부로부터 1982년 대통령 표창, 1990년 애국지사로 인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 받았다.

이들 외에도 제주출신 독립유공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조사작업이 민간차원에서 이뤄져 자료확보에 한계가 있고 객관적으로 공적이 분명해도 자료미비를 이유로 유공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지난 3월까지 서훈된 제주 독립운동가는 모두 183명이며, 유족이 서훈 신청했으나 서훈되지 못한 사람이 약 30명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 1905년 ‘을사늑약’에 항거해 의병결사단체 집의계를 결성하고 오라동 야산 바위언덕에 조선의 수치를 설욕한다는 의미로 ‘조설대’를 세기는 등 항일운동을 벌였던 12

인의 애국지사들도 제주 4·3때 관련 자료가 소실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작업을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을 확대해 유족들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유족은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자료 발굴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제적원부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작업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고유정 혐의 입증 문제 없어”

조재연 제주지검장 간담회

지난달 31일 취임한 조재연(사진) 제주지방법검찰청 검사장이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조 검사장은 14일 지검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4·3수형생존인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최근 4·3수형인 유족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어 진지한 자세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하는데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최대한 진실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훼손과 인허가 비리,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조 검사장은 “수사 역

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청정제주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겠다”며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검사장은 내년 치러지는 21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연말연시 분위기를 틔워 불법선거사범 및 변화하는 선거운동 양상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고유정 사건 변호인간 ‘신경전’

고씨 측 블로그 통해
“안타까운 진실 있다”

피해자 측 “계획범행
객관적 증거까지 부인”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 사건이 법정 밖에서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고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죄,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히 피해자의 혈흔 등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까지 부인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씨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언급해 ‘모독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닌 ‘공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화북동 동부공원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아파

트가 아닌 공원”이라며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에 역행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원 조성에 단일하게 대응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김현석기자

SFTS 세번째 환자 발생

제주보건소는 14일 오후 들어 제주 지역에서 세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 7일부터 발열, 기침, 설사 등으로 제주대학병원에 입원해 12일 SFTS 양성 진단을 받았다.

K씨는 주기적으로 경작하는 텃밭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는 숲과 목장, 오름 등에 서식한다고 보건소는 밝히고 있다.

김현석기자



컴퓨터 박물관에서 즐기는 게임 14일 제주시 노형동 넥슨컴퓨터 박물관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다양한 게임전시물을 둘러보고 직접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주 또 쓰레기 처리대란 봉착

봉개동주민들 “19일부터 쓰레기매립장 반입금지”
도, 긴급대책회의… 지역주민 설득 등 협의 돌입

제주지역의 쓰레기 처리대란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14일 “봉개동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을 오는 19일부터 전면 금지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신문광고를 통해 “봉개동쓰레기매립장은 매립지 만적으로 종료돼 최종복토를 시행해

야 함에도 현재 압축쓰레기 6만8000개, 폐목재 2만7000t, 약적된 압축쓰레기와 폐목재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은 줄지 않고 있다”며 “또 압축쓰레기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해 국내외적 망신과 그 처리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고 쓰레기 처리 행정을 성토했다.

주민대책위는 이어 “2018년 8월 17일 쓰레기 대란 발생은 막아야 한다는 공익 목적을 위해 봉개동 주민의 간절한 염원인 폐기물처리시설

이설을 이루는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시설 연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확약을 받고 체결한 협약은 1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이에 따라 “제주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실패와 땀집식 쓰레기 정책의 문제를 더 이

상 묵과할 수 없으며 도지사, 시장, 주민대표가 서명해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오는 19일부터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전면 반입 금지함을 알린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주민 설득을 통한 협의에 돌입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협약기간은 남아있지만 주민들이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기간까지 협의를 통해 음식물과 재활용 선별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윤기자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 쇼 날 FRP 페 인 트 총 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리실생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